047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4학년도 수특 문학 현대시 04 p.85~87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A] 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 값진 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 떠는 금성(金星),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은 고산 식물,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 **항상 머언** 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때 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굽이굽이 돌아 나간 시름의 황혼 길 위 —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노라.

- 정지용, 「그의 반」

㉯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B] **그대** 살 속의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 있는 누워 있는 구름,
결코 잠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 강은교, 「사랑법」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와 〔B〕는 모두 자연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대상의 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A〕와 〔B〕는 모두 열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③ 〔A〕는 〔B〕와 달리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연과 합일하려는 자세를 표출하고 있다.
④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A〕는 정적인 이미지, 〔B〕는 동적인 이미지의 시어로 대상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그'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한탄과 자책이 나타나 있다.
② ㉡: '그'에 대한 사랑이 쉽게 변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인식이 담겨 있다.
③ ㉢: '그'에게 다가갈수록 괴로움이 더 심화되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 '그대'가 소망하는 삶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전달하고 있다.
⑤ ㉤: '그대'가 바라는 세계는 특정한 삶의 태도를 지니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는 각기 다른 사랑의 방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절대적 존재인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식으로 고결한 모습의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 (나)의 화자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한 발 물러선 관조의 자세를 지닐 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① (가)에서 '그'가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롭고, '항상 머언' 곳에 있다는 것은 '그'가 고결한 모습을 지닌 절대적 존재임을 형상화한 것이로군.

② (가)에서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화자가 사랑하는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으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로군.

③ (나)에서 '침묵할 것'과 '실눈으로 볼 것'은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존재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관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밝힌 것이로군.

④ (나)에서 '꽃', '하늘', '무덤'에 대해 '서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사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로군.

⑤ (가)에서 '오로지 수그릴 뿐'은 화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을, (나)에서 '떠나게 하고', '잠들게 하고'는 화자가 '그대'에게 알려 주려는 사랑의 방식을 나타낸 것이로군.